

창세기 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열 번째 시간에서 가인의 뻔뻔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뻔뻔하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 반문하네요. 하나님을 향한 도발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한 문장에 폭력적인 인류 역사의 자기 변명이 분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책임 없다. 내가 왜 저런 불행까지 책임져야 되냐 하는 그런 식의 변명이죠.

그건 지금도 여전합니다. 전쟁 그리고 장애인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달픈 인생들 세상살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불행을 누구 한 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만 책임질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의식해야 되죠. 가인의 이 대답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열한 번째 읽기가 4장 10절부터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숨겨 있었죠 가인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감쪽같이 동생 살해 사건을 숨겨 버렸으니까요.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주도 4.3사건, 광주의 5.18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묻혀 있었어요. 과거사 진실 위원회에서 조금씩 그 역사에 묻힌 사실들을 들쳐내면서 공론화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요? 여전히 제주도 4.3 사건과 광주 5.18 사건을 빨갱이들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뭐 그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묻히면 그만이다 그런 정도는 생각하겠죠.

성서와 그리스도교 신앙은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일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숨겨지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두가 다 벌거벗고 서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게 말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더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신앙의 한 주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믿고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행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모든 것을 밀어 두고 지금은 이래도 좋고 잘해도 좋냐 지금은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냐 라는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건 아니겠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우리 영

혼의 깊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해 뒤야 되겠어요.

네가 무엇을 해야 하였느냐 설교조로 잠깐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목사에게 네가 무엇을 설교했냐 그리고 설교한 내용대로 네가 살려고 노력했냐 그런 질문을 받는 거죠. 마지막 때 목사도 심판 받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지금 여기에 이미 선취된 방식으로 들어와 있기도 해요.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못 느낍니다. 느끼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더 불행한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영혼이 무감각 해졌다는 거거든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구절도 유명합니다. 사람의 핏소리 형제 핏소리 내가 하나님에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인 거죠. 형에게 주먹으로 두드려 맞든지 돌에 맞았든지 죽은 그 동생의 핏소리 말입니다. 이 여기서 아우는 반드시 형 밑에 있는 아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약자들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비인간적인 수모 피해 폭로 사회 파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인류문명의 규범들입니다. 법의 본질이 그렇게 있어요.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제도 가운데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악하니까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부도덕한 자가 자기 잘못 몇가지를 눈물 흘리면서 고쳐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몰아붙이거나 학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켜 주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는 겁니다. 개인이 바뀌야 되기도 하고 사회가 바뀌야 되죠. 개인의 메타노이아도 필요하고 창의적 메타노이아도 필요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으로 가축 키우기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참 그걸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두 목축 업자가 양심적으로 동물 복지를 생각한다는 그 마인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 가로 세로 30cm 인가요? 정도 공간을 가로 세로 높이 그런데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활동을 못하는 거죠 가로 세로 몇 센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좁 방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수명을 물론 못 채우죠. 그들의 핏소리라고 저 구절을 바꿔서 생각하면 틀린 걸까요? **내게 호소하느니라** 현대인들의 무한한 탐식과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에서 벌어진 힘없는 자들의 아우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우리는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다시 나왔습니다. 앞대목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자연 생태계까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영향을 끼쳐서 타락한다는 얘깁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로 오면 실감 납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다른 때도 제가 종종 이야기한 것처럼 기후위기가 땅의 저주 아닙니까? 땅이 저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곡식을 많이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대기업입니다. 이게 땅에 와서 땅에 떨어져서 살충제 제초제랑 땅에 떨어져서 땅에 있는 모든 벌레들도 죽이고 땅의 생명을 약화시키는 거죠. 아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곡식 많이 내서 사람이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지 않냐 그런 반론을 하고 싶으신 분들 없겠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시는 대로 소를 키우기 위해서 곡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고기의 소비가 너무 많은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천문학적이죠. 거기서 소고기 소비를 10%만 줄이면 그러면 아프리카 기아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죠. 지금 몇 프로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를 키우기 위해서 옥수수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이제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언제까지 곡식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과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땅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 낼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과학의 발전 속도가 가속도라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을 잡기 힘듭니다. 결국 자연과학이 그 인간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많죠. 과연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런 문제까지 오늘 제가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지 않고요. 좀 아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말하기에는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땅, 혹은 흙은 인간이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하는 생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삶이 거기서 더 왔고 우리가 원래 돌아가기도 하고요. 현재 이 흙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벌레들과 동식물들 그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은 다 땅에서 벌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흙이죠.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가 생명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박테리아가 없어진다면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거죠. 모든 동물들도 죽으면 박테리아가 먹잖아요 그럼 그게 썩는 건데 그대로 있게 된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테리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온갖 것들이 흙에 붙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동식물들 곤충들이 다 이 지구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선포와 바로 이 대목에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선포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고 하나 어떻게 변명하나 봅시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얘기를 들었죠.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여튼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속된 표현으로 그런 말이 있죠. 죽어도 아무 말이 있는데 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없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는 마당에서도 뭔가를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염려 자기 합리화 이런 데서 사람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데, 보통 살인자도 아니고 존속 살해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리고 방금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뽐뽐스럽게 말하던 자인데, 지금 그 모든 일들이 발각 났다면 죽여주십시오 하고 땅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

거우니까 내가 잘못된 것만큼 보다 더 큰 죄벌이 내려졌다 하고 억울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히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또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기가 무거운지 가벼운 지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 그대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해야 옳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장에서 얘기를 했겠죠. 가인과 하나님과의 문답에서 나오는 몇 몇 구절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중요한 문장으로 사용됐다고 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발언이 그런 거예요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에서 저 문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사용된 대목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2 차 세계대전 전범 들에 대한 재판과 관계된 겁니다. 그건 나치에서 활동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내가 잘못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명령대로 했다 국가에서 나치 제국도 독일 정부니까요. 국가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국가 사회주의죠. 나치즘이요. 그 나라에서 명령한 대로 자기들의 한건데 무슨 잘못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에 얹힌 소설도 제법 있고요 영화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책도 있죠. 어떤 영화라는 건 아는데 제목이 떠오르지 않네요. 제목이 독일어는 포레종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치 감옥에서 활동했던 어떤 여자가 10대중 후반 고등학생인가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고 그리고 성관계까지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고 그 다음 이제 헤어지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고등학생이었던 사람은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범 재판소에 변호하러 왔는데 그 여자를 본 겁니다.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거죠. 억울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덤터기를 씁니다. 자기 방어를 안 해요.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안 한 이유가 그걸 하게 되면 자기가 문맹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문맹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감옥살이를 더 하는 게 낫다고 이 여자는 생각하는 겁니다. 제목이 왜 생겨나지 않죠? 결국 이 남자가 계속 변호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여자가 자살합니다.

감옥에서 나치에 속했던 고위 관료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는 이 벌은 너무 무겁다 나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

경에 나온 이 멘트들이 인간 삶의 그 정곡을 찌르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나쁜 놈들만 저러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저런 심리적인 태도는 자주 나타납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동생을 죽인 주제에 하나님 낯을 못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적어도 인간의 어두운 면들, 본질, 영혼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염려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도 반복되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십니다. 여기 앞에 나온 이야기만 그냥 거칠게 본다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명 밖에 없잖아요 이 세계에서. 근데 그를 만나는 자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하고 성경 좀 이상하네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